

# 구스타브 클림트(Gustav Klimt) 작품에 표현된 개혁의상에 관한 연구

김선영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서구 유럽은 격변의 시기로 다양함과 복잡성을 띤 시기였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진보에 대한 낙관론의 분위기가 충만하였고 인간의 정신적 가치관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예술전반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복식 역시 그 시대의 문화와 유행을 대변해주는 척도로서 이 시기의 복식의 미학적 범주 역시 다른 예술의 영역들과 동일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격동기인 20세기 전후는 오스트리아 문화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으며 빈 분리파의 창립과 활동은 디자이너와 공예가와 예술가의 결합으로 이어져 1903년 빈 공방을 창립하게 하였고 복식과 미술의 상호 영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빈 분리파는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게는 자유를”이라는 모토 아래 외국의 미술흐름을 빈에 적극 소개하고 빈의 미술을 외국에 알렸으며 생활과 예술을 연계한 철저한 총체예술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 문화예술의 거장으로 빈 분리파를 이끌었던 클림트의 작품 속에 표현된 개혁의상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화가로서 새로운 복식디자인에 적극 개입하여 근대 복식에 큰 영향을 미친 클림트의 개혁의상을 고찰함으로써 총체적 예술 개념에서 21세기 패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클림트는 당시 유행하던 상징주의 미술, 아르누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순수와 응용의 구분 혹은 장르간 구분을 넘어 총체적인 예술을 지향하였고, 관능적인 여성 모티브와 유려한 선, 화려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여 성과 사랑, 죽음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전개시켜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찬사를 받고있다.

연구 결과 클림트 작품에 표현된 개혁의상의

특성은 장식성과 에로티시즘, 상징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장식성은 환상적인 색채와 다양한 모티브, 이국적인 특징 등을 주 소재로 하여 표현되었다. 장식의 표현 역시 간접적인 관능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단순한 장식의 영역을 떠나 꿈과 환상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움과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 색채와 장식, 가득 채워진 공간과 형태의 다양성, 풍요로운 질감의 겹침 그리고 단순한 의상의 형태 등으로 장식성이 표현되었다.

둘째, 에로티시즘으로 클림트의 작품에서 잠재적 성욕을 내포하는 여인들의 에로틱한 포즈나 표정에서 직접적인 관능성과 귀부인들의 초상화에서 보이는 정제된 표현에서 볼 수 있다. 장식의 색과 형태가 갖는 에로틱함을 표현하여 여체의 노골적인 에로티시즘을 자연스럽게 대체하여 나타내었다.

셋째, 상징성은 새로운 예술양식의 주요 관심사가 생활의 모든 영역을 예술적으로 개혁하고자 한 것과 같이 개혁의상 역시 상승된 지위를 가진 시민계급의 문화적 욕구를 나타내었다. 클림트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디자인의 경우 기존 가치관의 변혁을 모색하여 노력하던 20세기 초 당대 여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인 관능미로서 표현하여 상징성으로 표현하였다.

여인의 화가라고 일컬어지는 클림트는 욕망과 매혹의 대상으로서 여성을 관능과 꿈의 세계로 인도하였으며 그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관능의 무한한 힘을 생생하게 드러내 그것이 갖는 미학적 영향력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되돌아보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클림트의 총체적 예술개념에 입각한 개혁의상의 창조 정신은 21세기의 디자이너들에게도 독창적인 디자인개발을 창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